



올해 과일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5월 이후 사과 저장량은 작년보다 34% 많고, 배는 24% 적어

- 5월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낮고, 배는 비슷할 듯
- 5~6월 포도와 감귤 출하면적은 가온재배의 감소로 작년보다 각각 2%, 11% 줄어들 듯

사과는 착색계후지와 홍로, 복숭아는 유모계 조·중생종 재배면적이 증가

- 최근 사과는 일반후지에 비해 과피에 줄무늬가 보다 뚜렷한 착색계후지로 전환
- 2000년 이후 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
- 감귤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천혜향과 레드향 등의 만감류로 품종 다변화

전국적으로 개화기 저온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아

- 사과와 감귤의 개화상황은 양호, 배와 복숭아는 좋지 않아
- 복숭아는 내한성 약한 일부 조·중생종 품종에서 동해 피해 발생

■ 과일 재배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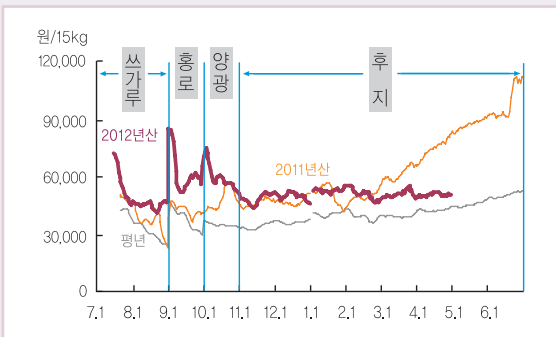
	사과	배	감귤(노지온주)	포도	복숭아
2013년	30,668	13,908	18,567	16,913	14,569
2012년	30,734	14,353	18,725	17,181	14,335
증감률	-0.2	-3.1	-0.8	-1.6	1.6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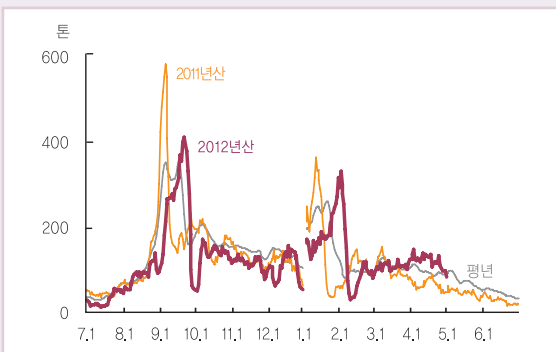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08~12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사과 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5월 이후 출하량

단위: 천톤, %

	2013년	2012년	증감률
출하량	27.9	20.8	33.7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모니터, 저장업체 조사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2년산	상품	55,733	45,217	61,622	59,066	48,431	49,833	52,948	50,871	50,821	50,566		
	중품	40,386	34,117	49,931	48,769	36,903	40,346	40,944	41,952	39,066	39,892		
2011년산	상품	46,316	36,697	42,420	48,472	46,265	47,163	51,395	49,543	61,375	74,891	86,937	98,276
	중품	33,828	27,348	30,773	40,896	33,110	34,377	37,552	38,113	47,897	62,434	74,500	81,793
평년	상품	46,215	34,721	42,635	37,598	38,381	39,998	45,451	43,173	43,317	45,593	45,355	50,479
	중품	38,221	32,026	21,845	28,581	27,011	28,585	32,099	32,178	32,743	36,250	36,048	39,043

주 1)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2) 가격은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은 양광, 11월 이후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8~12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4월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33% 낮아

- 4월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 상자에 5만 1천원(중품 4만원)으로 작년보다 33% 낮지만, 평년보다 11% 높았다. 이는 반입량이 작년보다 68% 많았기 때문이다.

출하 5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34% 많아

- 4월까지('12.7~'13.4) 사과 출하량은 작년보다 2% 많은 36만 7천톤이었다. 5월 이후 저장 출하량은 작년보다 34% 많은 2만 8천톤으로 추정된다.

가격 5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을 듯

- 5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 상품 15kg 상자에 5만~5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35% 가량 낮지만,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5월에 주로 출하되는 수박, 참외, 토마토 출하량도 작년보다 4~8%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과는 6월에도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목면적은 작년보다 감소, 성목면적은 증가

면적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 2013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만 668ha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유목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하고, 성목면적은 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식재한 유목이 성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의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강원과 호남지역은 작년보다 각각 2%, 충청과 경남지역은 각각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 후지 재배면적이 작년과 비슷한데, 일반 후지(동북 7호)는 작년보다 3%(448ha) 감소했지만 착색계후지(미시마, 미야마, 기쿠8, 로얄후지)가 7%(403ha)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후지는 일반후지에 비해 과피에 줄무늬가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착색계후지로 전환되고 있다.
- 홍로와 감홍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로는 출하시기가 추석 무렵으로 시세가 비교적 높고, 감홍은 경북 문경·경남 거창에서 특화품종 육성을 위한 묘목 지원으로 면적이 늘고 있다.
- 후지조숙계(료카, 히로사키, 홍장군)와 양광 품종은 봉지재배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작년보다 각각 5%,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 재배면적

	후지			후지 조숙계	쓰가루	홍로	양광	감홍
	계	일반	착색계					
2013년	19,176	12,572	6,604	2,315	1,546	4,448	715	539
2012년	19,221	13,020	6,201	2,433	1,613	4,285	733	521
비중	62.5	42.4	20.2	7.9	5.2	13.9	2.4	1.7
증감률	-0.2	-3.4	6.5	-4.8	-4.2	3.8	-2.6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개화 개화시기는 작년보다 다소 늦어

- 올해 개화시기는 작년보다 1~2일 늦고, 개화 상황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량은 작년보다 많으며, 전국적으로 개화기 저온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재배면적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3년	8,776	21,893	30,668
2012년	9,105	21,629	30,734
증감률	-3.6	1.2	-0.2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ha, %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2013년	444	5,610	2,183	19,062	3,193
2012년	434	5,582	2,142	19,098	3,161
비중	1.4	18.2	7.0	62.1	10.3
증감률	2.3	0.5	1.9	-0.2	1.0

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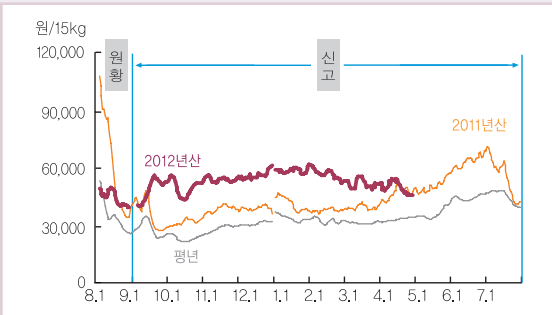
■ 개화상황

단위: %

	좋은	비슷	나쁨
작년대비	24.0	56.0	20.0
평년대비	10.5	53.5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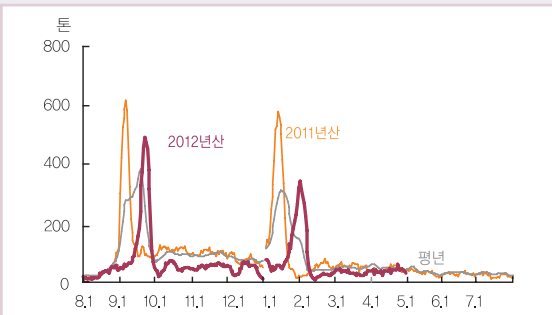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08~12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배 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5월 이후 출하량

단위: 천톤, %

	2013년	2012년	증감률
출하량	18.0	23.7	-24.2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모니터, 저장업체 조사치

■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12년산	상품	43,597	48,137	49,041	53,468	55,566	58,086	57,092	51,139	49,881			
	중품	35,045	32,964	33,991	38,940	42,039	43,031	46,327	35,653	35,614			
2011년산	상품	58,601	35,710	31,014	37,643	38,598	42,334	37,154	38,794	46,512	50,303	62,315	55,818
	중품	43,086	23,933	24,081	27,096	27,641	28,963	29,432	29,751	33,707	37,801	48,020	37,870
2010년산	상품	36,260	35,025	28,067	35,026	39,257	43,661	35,097	31,914	32,758	38,538	51,369	64,179
	중품	27,382	21,393	21,359	24,615	27,239	28,635	25,790	20,831	18,761	21,991	31,580	30,943
평년	상품	36,205	31,734	27,303	32,742	35,547	39,746	35,086	34,405	37,638	35,069	43,781	45,496
	중품	28,418	21,288	21,021	23,290	25,240	27,088	26,343	24,920	27,305	24,034	30,508	28,020

주 1)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2) 가격은 8월은 원황, 9월 이후는 신고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8~12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향 4월 배 가격은 작년보다 7% 높아

- 4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원(중품 3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7%, 평년보다 33% 높았다. 4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17% 적었지만, 소비가 부진하여 배 가격이 크게 높지는 않았다.

출하 5월 이후 출하량 작년보다 24% 적을 듯

- 5월 이후 저장 출하량은 1만 8천톤으로 작년보다 24%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업체 조사결과, 4월 말 현재 감모율은 13%로 작년보다 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과실 비대를 위해 수확을 지연시킴에 따라 경도가 낮아 저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격 5월 신고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듯

- 5월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8천~5만 3천 원으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이후 출하량이 작년보다 24% 적지만, 품질이 다소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5월에 주로 출하되는 수박, 참외, 토마토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4~8%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 가격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배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면적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듯

- 2013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445ha) 감소한 1만 3,908ha로 조사되었다.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3% 줄어든 1만 2,996ha, 유목면적은 9% 줄어든 912ha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3% 감소하고, 호남과 영남지역은 각각 4%,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폐원과 산업단지 편입, 지역개발이 주된 요인이다.
- 품종별로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각각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화산 등의 묘목이 보식을 위해 매년 거래되고 있지만 신규 개원하는 농가가 미미하고,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과 도시개발이 많아 재배면적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화 개화는 작년보다 빠르지만, 저온피해 일부 있어

- 올해 개화시기는 작년보다 2일 빠르고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과 영남지역의 개화는 작년보다 4~5일 빠르고, 경기·충청지역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찍 개화한 곳이나 일부 저지대에서는 저온으로 꽃이 일시에 개화되지 않고 지연되어 개화기간이 작년보다 길었다.
- 개화상황은 작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4월 상순 저온으로 냉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결실에 영향을 주고, 3~4번화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형과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최근 잦은 강우 때문에 흑성병 발생이 우려된다. 작년에도 개화기 잦은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흑성병 발생률이 높았다.

■ 재배면적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3년	912	12,996	13,908
2012년	1,007	13,346	14,353
증감률	-9.4	-2.6	-3.1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ha,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2013년	3,225	3,091	4,142	3,442
2012년	3,320	3,192	4,326	3,507
비중	23.1	22.2	30.1	24.4
증감률	-2.9	-3.2	-4.2	-1.8

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신고	원황	황금	화산
2013년	11,535	829	318	168
2012년	11,866	855	330	172
비중	82.7	6.0	2.3	1.2
증감률	-2.8	-3.0	-3.6	-2.2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품종별 성목면적

단위: ha, %

	신고	원황	황금	화산
2013년	10,830	788	297	150
2012년	11,087	809	309	153
증감률	-2.3	-2.6	-3.7	-2.2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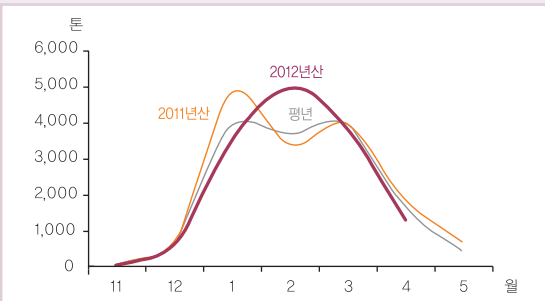
■ 개화상황

단위: %

	좋은	비슷	나쁨
작년대비	10.2	53.3	36.6
평년대비	6.2	54.9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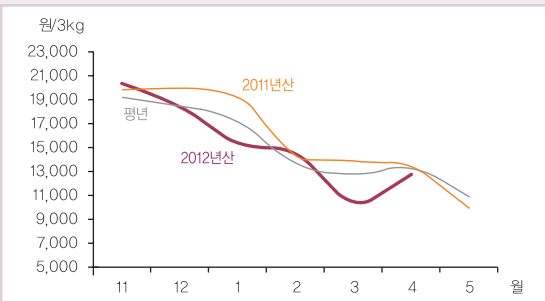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만감류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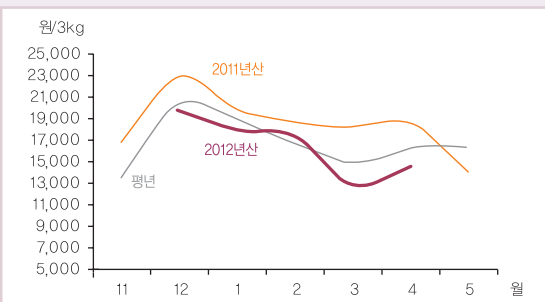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8~12년산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한라봉 도매가격



주: 평년은 2008~12년산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천혜향 도매가격



주: 평년은 2008~12년산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만감류 출하량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2012년산		53	589	3,462	4,897	3,856	1,326		14,183
2011년산		55	598	4,755	3,328	3,891	1,816	685	14,443
평년		72	668	3,842	3,630	3,911	1,617	377	13,740
증감률	작년대비	-3.4	-1.5	-27.2	47.1	-0.9	-27.0		-1.8
	평년대비	-25.9	-11.8	-9.9	34.9	-1.4	-18.0		3.2

단위: 톤, %

주 1) 평년은 2008~12년산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계는 4월까지의 출하량 합계임.

2) 만감류 출하량은 한라봉·천혜향의 제주도 도외출하량 합계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만감류 만감류 출하량 작년보다 2% 적어

- 2012년산 한라봉과 천혜향 출하량('11.11~'12.4)은 작년보다 2% 감소하였다. 한라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반면, 천혜향은 3% 증가하였다.
- 한라봉 4월 평균도매가격(9개 도매시장 총거래금액/총거래량)은 3kg 상자에 1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4%, 평년보다 2% 낮았다. 천혜향은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22%, 평년보다 10% 낮았다.

면적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한 듯

- 2013년 감귤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30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 면적은 노지온주와 하우스 온주가 작년보다 각각 1%, 4% 줄어들고,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각각 6%, 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지온주는 FTA 지원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월동온주와 만감류로 품종이 전환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오렌지 수입 증가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으로 천혜향·레드향 등의 만감류로 품종이 다변화되고 있다. 한편, 하우스온주는 가온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5~6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작년보다 7% 감소 전망

- 만감류에서는 한라봉이 작년보다 1% 늘고, 천혜향과 레드향은 작년보다 각각 4%,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레드향은 소비자 선호가 높고, 재배가 비교적 용이하여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생산 하우스온주 생산량은 작년보다 1% 감소할 듯

- 올해 하우스온주 생산량은 작년보다 1% 감소한 2만톤으로 예상된다. 단수가 작년보다 3% 증가하지만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4% 줄었기 때문이다.
- 5~6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수가 작년보다 4% 증가하지만 출하면적이 11% 감소하기 때문이다. 7월 이후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품질 5~6월 하우스온주 품질은 작년보다 좋을 듯

- 5~6월에 출하될 하우스온주의 당도 및 당산비는 작년보다 좋고, 외관도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4월 산지의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화 노지온주 개화시기는 작년과 비슷할 듯

- 노지온주 개화시기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상순에는 개화시기가 작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순부터 서귀포·남원·중문 등의 해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개화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 서부(해거리현상)와 북부(동해 피해) 일부 지역에서는 개화상황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귤 재배면적

단위: ha, %

	온주				만감류
	계	노지	월동	하우스	
2013년	18,567	17,184	1,110	273	1,899
2012년	18,725	17,389	1,051	285	1,870
증감률	-0.8	-1.2	5.6	-4.1	1.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만감류 재배면적

단위: ha, %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기타
	계	노지	하우스			
2013년	1,371	90	1,281	197	93	239
2012년	1,362	91	1,271	190	75	243
비중	71.9	4.9	68.0	10.1	4.1	13.0
증감률	0.6	-0.8	0.8	3.9	23.4	-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하우스온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A)	273	7,136	19,672
2012년(B)	285	7,060	19,963
평년	298	7,235	21,577
증감률(A/B)	-4.2	3.0	-1.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하우스온주 출하량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5~6월	7월 이후
출하면적	-10.9	3.2
단수	4.2	-
출하량	-6.7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하우스온주 품질(작년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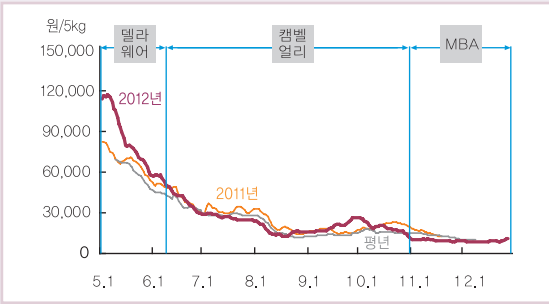
	좋음	비슷	나쁨
외관	30.8	69.2	0.0
크기	25.8	69.2	5.0
당산비	41.7	58.3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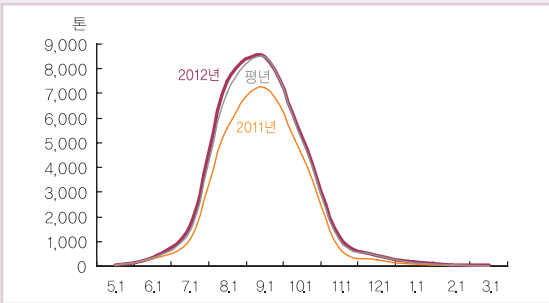
비가림·노지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줄고, 시설면적은 늘어

■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포도 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포도 재배면적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3년	2,465	14,448	16,913
2012년	2,537	14,644	17,181
증감률	-2.8	-1.3	-1.6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비가림·노지			시설		
	유목	성목	계	유목	성목	계
2013년	2,099	12,164	14,262	367	2,284	2,651
2012년	2,193	12,397	14,590	344	2,247	2,591
증감률	-4.3	-1.9	-2.2	6.6	1.6	2.3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시설 재배면적

단위: ha, %

	가온	무가온	계
2013년	874	1,777	2,651
2012년	915	1,676	2,591
증감률	-4.5	6.0	2.3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동향 2012년 포도 가격은 전년보다 9% 낮아

- 2012년 포도 도매가격(5~11월 가락시장 기준, 총거래 금액/총거래량)은 전년보다 9% 낮았다. 이는 작황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전년보다 25% 많았기 때문이다.
- 7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 상자에 2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17% 낮았고, 8월은 1만 6천원으로 24% 낮았다. 9월은 추석을 겨냥한 수요가 증가하여 캠벨얼리와 MBA 가격 모두 전년보다 20% 이상 높았다.

면적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한 듯

-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 2만 9,200ha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도시개발, 고령화에 따른 폐원, 품목 전환 등이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 2013년 포도 재배면적은 1만 6,913ha로 작년보다 2%(268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림·노지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328ha) 줄지만,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 등에서는 신규 식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설재배면적은 비가림·노지재배에서 전환, 지자체의 신규 식재 지원 등으로 작년보다 2%(60ha) 늘어난 2,651ha로 조사되었다.
- 가온시설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하고, 무가온은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겨울철 저온 및 난방비 부담으로 가온에서 무가온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포도 출하기에 태풍 등을 피해 조기 출하를 원하는 농가가 비가림·노지재배 대신 무가온시설 재배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육 3~4월 저온으로 생육상황 좋지 않아

- 시설포도 개화 및 착립시기는 작년보다 다소 늦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옥천과 전북 남원에서 저온 피해가 있었고, 충남 천안은 발아가 작년보다 다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3월 하순부터 일교차가 심하고 야간온도가 낮아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비가림·노지포도는 생육상황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중·하순에 발아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4월 저온으로 발아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북 영동의 MBA 품종은 작년 과다착과 및 숙기지연으로 일부 발아 불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 5~6월 출하면적은 소폭 축소될 듯

- 시설포도 출하시기는 작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4~5월과 6월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 2% 줄고, 7월 이후는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온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 포도 생육상황(작년대비)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시설	14.6	55.9	29.6
비가림·노지	5.3	70.2	24.5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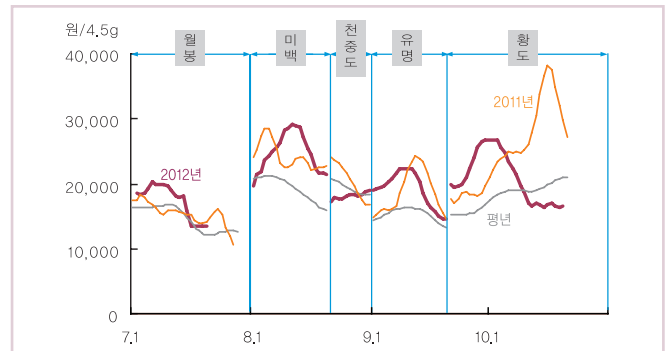
■ 시설포도 월별 출하면적

단위: ha, %

	4~5월	6월	7월 이후	전체
2013년	31.4	314	1,939	2,284
2012년	32.4	319	1,896	2,247
증감률	-3.3	-1.5	2.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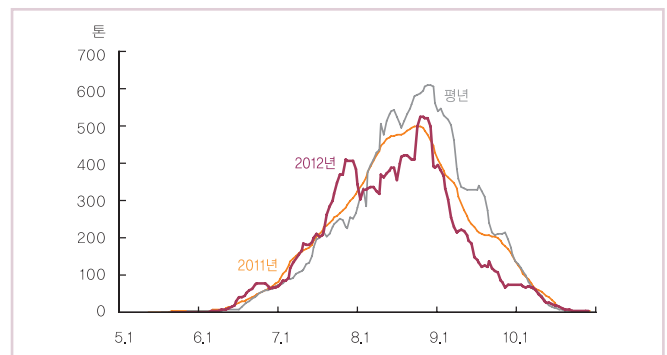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유모계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복숭아 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동향 작년 복숭아 가격은 평년보다 높아

- 2012년 복숭아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았다. 6~10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평년보다 14% 높았는데, 이는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이 평년보다 6% 적었기 때문이다.

면적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한 듯

- 복숭아 재배면적은 2003년 1만 5,880ha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폐원지원사업과 도시 개발로 2008년 1만 2,638ha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폐원지원대상 과원의 식재 제한연도 종료('08년)로 최근에 기존 농가의 식재가 늘면서 2012년 재배면적은 1만 4,335ha로 증가하였다.

■ 복숭아 재배면적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천도계	2013년	882	1,805	2,687
	2012년	864	1,856	2,720
	증감률	2.1	-2.8	-1.2
유모계	2013년	4,062	7,821	11,883
	2012년	3,887	7,728	11,615
	증감률	4.5	1.2	2.3
전체	2013년	4,944	9,626	14,569
	2012년	4,751	9,584	14,335
	증감률	4.1	0.4	1.6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숙기별 재배면적 증감률(작년대비)

단위: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천도계	증감률	-0.9	-1.3	-2.0
	면적비중	36.5	41.5	22.0
유모계	증감률	3.0	2.5	1.3
	면적비중	27.6	38.9	33.5
전체		2.1	1.8	0.9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ha,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2013년	1,510	4,305	1,202	7,317
2012년	1,502	4,391	1,238	7,427
비중	10.3	30.2	8.5	51.0
증감률	-0.5	2.0	3.0	1.5

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

자료: 통계청(2012년),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 개화시기

	작년대비	평년대비
경기	2일 늦음	5일 늦음
강원	4일 늦음	5일 늦음
충청	3일 늦음	4일 늦음
호남	비슷	1일
영남	1일 빠름	비슷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3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1만 4,569ha로 작년보다 2%(234ha)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목면적은 5천 ha로 작년보다 4% 늘고, 성목면적은 작년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11~'12년) 유모계 유목면적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동해 피해로 신규 식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품종별 재배면적은 유모계가 1만 1,883ha로 작년보다 2% 확대되고, 천도계는 2,687ha로 1%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숙기별 재배면적은 유모계 조 · 중생종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유모계 조 · 중생종과 만생종이 작년보다 각각 3%, 1% 증가했지만, 천도계 조 · 중생종과 만생종은 각각 1%, 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로는 충청 · 호남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2%, 3% 증가하고, 영남지역은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 개화시기 작년보다 2일 늦어

• 올해 개화시기는 작년보다 2일 늦고, 개화상황은 지역에 따라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화시기는 호남과 영남지역이 작년과 비슷하고, 경기 · 강원 · 충청지역은 작년보다 2~4일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이변에 의해 4월 상순 저온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지역은 개화기간이 짧아수정이 다소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는 크지 않지만, 충북 영동과 전북지역(남원, 전주, 임실)은 내한성에 약한 조 · 중생종(경봉, 서미골드 등)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또한 충북 옥천은 3~4월 저온 피해로 꽃눈이 일부 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4월 과일 수입은 작년보다 20% 적어

수입과일

3~4월 과일 수입량은 작년보다 20% 감소

- 3~4월 과일 수입량은 18만톤으로 작년보다 20% 감소하였다. 오렌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수입은 작년보다 각각 15%, 14%, 35%, 16% 감소하였다. 과일 전체 수입단가는 1.43달러로 작년보다 13%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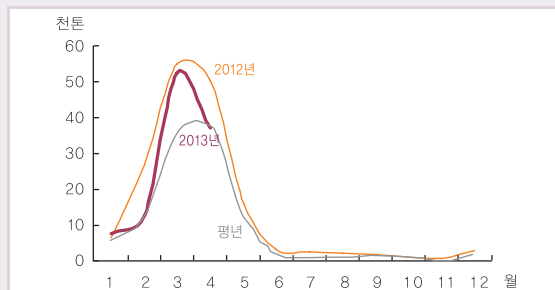
오렌지 5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듯

- 3~4월 오렌지 수입량은 작년보다 15% 적은 9만 1천톤이었다. 5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소비 부진과 미국의 수출기간이 작년보다 짧아지기 때문이다.
- 3~4월 평균수입단가가 kg당 1.27달러로 작년과 비슷하였으나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8kg 상자에 4만원으로 작년보다 8% 낮았다.
- 2012년 캘리포니아의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8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미국 농무부, '13.4.10). 네이블 오렌지는 현지 기상여건으로 인해 작년보다 수출 종료시기가 10일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포도 5월 수입은 작년보다 많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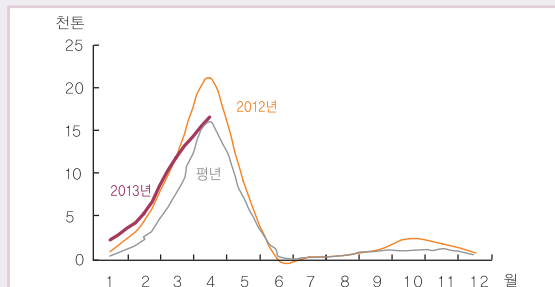
- 3~4월 포도 수입량은 칠레 향만파업('13.3)의 여파로 작년보다 14% 감소한 2만 8천톤이었다. 5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칠레의 향만 파업이 4월에 종료됨에 따라 칠레산 포도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3~4월 포도 수입단가는 3.13달러로 작년보다 27% 높았다. 그러나 동기간 도매가격은 상품 8kg 상자에 3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14% 낮아 수입업체의 수익성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오렌지 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포도 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오렌지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8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2	2013	등락률	2012	2013	등락률
1월	1.29	1.28	-1.1	50,326	43,340	-13.9
2월	1.21	1.26	4.0	48,700	39,155	-19.6
3월	1.23	1.25	1.3	49,165	41,424	-15.7
4월	1.30	1.29	-0.7	37,253	37,819	1.5
5월	1.33			37,863		
평균	1.25	1.27	0.9	46,361	40,435	-12.8

주: 수입단가 평균은 1~4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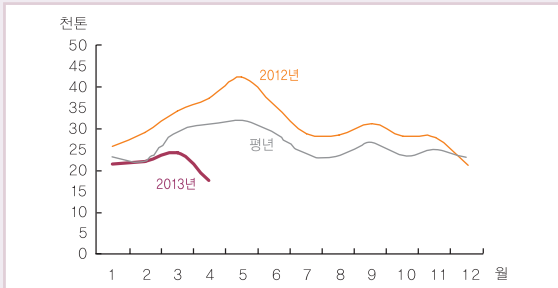
■ 포도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8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2	2013	등락률	2012	2013	등락률
1월	3.56	3.60	1.0	46,174	41,490	-10.1
2월	3.23	3.63	12.4	52,080	45,104	-13.4
3월	2.64	3.34	26.5	45,515	36,206	-20.5
4월	2.37	2.98	25.5	35,463	33,810	-4.7
5월	2.35			34,538		
평균	2.58	3.23	25.2	44,808	39,15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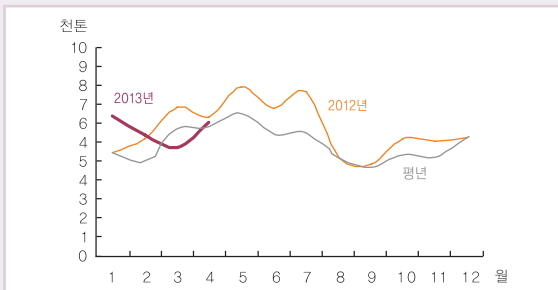
주: 수입단가 평균은 1~4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바나나 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인애플 수입량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바나나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3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2	2013	등락률	2012	2013	등락률
1월	0.58	0.61	4.9	12,804	17,040	33.1
2월	0.64	0.69	9.1	15,960	20,038	25.6
3월	0.75	0.79	4.4	21,067	23,936	13.6
4월	0.84	0.93	11.6	23,002	27,927	21.4
5월	0.83			22,140		
평균	0.66	0.70	6.1	18,208	22,235	22.1

주: 수입단가 평균은 1~4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파인애플 수입단가와 도매가격(상품)

단위: 달러/kg, 원/12kg, %

	수입단가			도매가격		
	2012	2013	등락률	2012	2013	등락률
1월	0.72	0.80	10.8	18,518	17,996	-2.8
2월	0.70	0.68	-3.3	19,804	13,560	-31.5
3월	0.80	0.73	-8.7	21,853	19,886	-9.0
4월	0.78	0.83	5.7	20,150	25,179	25.0
5월	0.79			19,811		
평균	0.75	0.74	-2.1	20,081	19,155	-4.6

주: 수입단가 평균은 1~4월 총수입액/총수입량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바나나 5월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할 듯

• 3~4월 바나나 수입량은 필리핀의 태풍 피해('12.12)로 작년보다 35% 감소하였다. 5월 수입량도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완료되어 6~7월에는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3~4월 바나나 수입단가는 0.86달러로 작년보다 8% 높았고, 도매가격은 상품 13kg 상자에 2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8% 높았다.

파인애플 5월 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할 듯

• 3~4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작년보다 16% 감소한 1만 2천톤이었다. 5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월에 파인애플의 채산성이 작년보다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 4월 수입단가는 0.83달러로 작년보다 6% 높았고, 도매가격은 상품 12kg 상자에 2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25% 높았다.

키위·체리 5월 키위 수입은 감소, 체리는 증가할 듯

• 3~4월 키위 수입량은 2천톤으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키위 최대 생산국인 이탈리아의 검역 통과로 올해 3월부터 수입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 키위시장이 작년보다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1~2월 체리 수입량은 107톤(뉴질랜드산)으로 작년보다 3% 증가하였다. 5월에는 캘리포니아 조생종 작황이 양호하여 체리 수입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과수 병해충 발생정보

[2013. 5. 1~5. 31]

1. 배 검은별무늬병(주의보), 사과 붉은별무늬병, 점무늬낙엽병

- ▶ 검은별무늬병은 5~6월 비가 자주 올 때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 가지가 무성한 과원에서 발생이 많고, 전년도 개화기 때 잦은 비로 방제시기를 놓쳐 발생이 많았음. 금년도 4월 하순에도 비가 잦았고, 5월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강우가 예보되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 붉은별무늬병은 병원균이 향나무에서 월동한 후 비가 오면 사과·배나무로 날아가 병을 발생시킴.
- ▶ 점무늬낙엽병은 질소비료가 많아 잎이 연약할 때 발생이 많고 주로 5월부터 잎에 반점이 형성되며 과실에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함.

2. 과수 해충

- ▶ 복숭아순나방은 5월에 1세대 성충이 발생하는 시기로 성페로몬트랩 등을 활용하여 예찰
 - ☞ 피해 신초를 발견하면 제거하여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주고 작년에 복숭아순나방 발생이 많았던 곳에서는 꽃이 진 후 방제
- ▶ 꼬마배나무이는 꽃봉오리에 산란한 알이 부화를 시작하는 시기
 - ☞ 월동기에 방제가 소홀했던 과원에서는 예찰하여 꽃이 진 후 발생 초기에 방제
- ▶ 포도유리나방은 새 가지 속을 파고 먹어 들어가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어린 나무에 발생하면 피해가 큼.
 - ☞ 유충이 있는 가지는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므로 유충을 찾아서 죽이거나 피해가 많은 곳에서는 성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6월에 전용약제로 방제
- ▶ 진딧물류(사과혹진딧물, 배나무면충)는 월동약제 및 개화 전 방제를 소홀히 한 과원에서는 꽃이 진 후 방제

자료: 농촌진흥청

5~7월의 기상

※기상청(www.kma.go.kr), 2013년 5월 3일 발표

■ 5월 예보

	평균기온	강수량
중순	평년(15~19℃)보다 높음	평년(24~66mm)보다 적음
하순	평년(17~20℃)과 비슷함	평년(20~51mm)과 비슷함

■ 지역별 5월 순별 예보(평년 기준)

	평균기온		강수량	
	중 순	하 순	중 순	하 순
전국 평균	15~19℃보다 높음	17~20℃와 비슷	24~66mm보다 적음	20~51mm와 비슷
서울·인천·경기	15~17℃보다 높음	17~19℃와 비슷	37~45mm보다 적음	27~30mm와 비슷
강원 영서	15~17℃보다 높음	17~19℃와 비슷	36~43mm보다 적음	25~29mm와 비슷
강원 영동	16~18℃보다 높음	17~19℃와 비슷	30~35mm보다 적음	31mm와 비슷
대전·충남	16~17℃보다 높음	18~19℃와 비슷	32~40mm보다 적음	20~30mm와 비슷
충북	16~18℃보다 높음	17~20℃와 비슷	31~43mm보다 적음	23~24mm와 비슷
광주·전남	17~18℃보다 높음	18~20℃와 비슷	32~50mm보다 적음	22~44mm보다 많음
전북	16~18℃보다 높음	18~20℃와 비슷	34~35mm보다 적음	22~23mm보다 많음
부산·울산·경남	16~18℃보다 높음	18~19℃와 비슷	31~66mm보다 적음	25~51mm보다 많음
대구·경북	16~19℃보다 높음	17~20℃와 비슷	24~46mm보다 적음	22~30mm보다 많음
제주	18℃보다 높음	19~20℃와 비슷	34~65mm보다 적음	30~60mm보다 많음

■ 6~7월 예보(2013. 4. 23 발표)

-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음.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 7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흐린 날이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과일관측 2013년 6월호 예고(예정일자: 2013. 6. 7)

- 가 격 동 향 : 사과, 배, 감귤, 포도
- 출 하 동 향 : 사과, 배, 감귤, 포도
- 수 입 동 향 : 오렌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체리
- 기 상 예 보 : 2013년 6~8월 기상

이 「농업관측월보」는 인터넷(<http://aglook.krei.re.kr>)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과일관측월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287 FAX: 02) 957-4572

<http://www.mafra.go.kr> ☎ 044) 201-2256 FAX: 044) 868-0132

- 담당자 : 신유선(과일관측팀장, 사과), 이미숙(배, 포도), 강지석(감귤, 단감), 박지연(복숭아, 수입과일), 윤경진(그래픽, 기상)
- 감 수 : 김병률(농업관측센터장), 이용선(원예실장)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SMS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2-3299-4310)에게 연락바랍니다.